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자	2022년 7월 12일(화) 총 3매	
담당 부서 녹지정책과	담 당 자	• 산림휴양팀장 최종순 ☎440-3676 • 담당자 채미숙 ☎440-3677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하나개해수욕장이 바로 앞...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 개장
 - 인천 최초 국립자연휴양림 ... 19개 객실, 목공예체험장 등 갖춰 -
 - 산림청 홈페이지서 예약 가능 -

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바로 앞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12일 인천시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인 ‘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’의 개장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.

전국에는 45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있으나, 인천과 서울지역에 국립자연휴양림은 한 곳도 없었다.

시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산림청과 국회를 방문해 무의도 국립휴양림 조성을 요청했고, 드디어 46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 무의도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.

‘무의도’라는 이름은 섬의 모양이 장수가 관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전설과,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

춤을 추었다하여 유래하였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는 섬이다.

선녀를 춤추게 할 만큼 빼어난 조망 뿐 아니라 우수한 산림자원의 등산 코스가 잘 정비돼 있는 호룡곡산·국사봉과 하나개해수욕장, 큰무리해수욕장, 실미도 유원지 등이 가까이에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.

축구장 약 137개 규모(137ha)로 조성된 휴양림은, 숲속의 집 11동과 연립 2동(8실) 등 총 19개의 객실과 산책로(2km), 안내센터, 목공예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. 총 1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.

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는 바로 인접해 있어,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 오는 경관을 자랑함은 물론, 2019년 개통된 무의대교를 이용하면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도착할 수 있어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다.

휴양림 숙박은 ‘산림청 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’ 홈페이지(<https://www.foresttrip.go.kr>)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.

개장식에 참석한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“무의도 자연휴양림은 서해가 품은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,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최고의 휴양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 옹진군에는 2023년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.